

윤석열 재구속, 시민 '안도'... "계엄 그늘 지우는 첫걸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뒤늦은 결정이지만 마땅한 결과”
5·18 겪은 세대들 “상식의 회복”
여전한 계엄 트라우마 호소도
불법행위 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우리에게 계엄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입니다.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전격 재구속된 가운데, 광주 시민들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마땅한 결과”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는 이번 결정을 ‘상식의 회복’이라 평가했다.

버스 기사로 일하는 박모(64)씨는 “계엄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 있다”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풀려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우려

됐는데, 구속돼 안심된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한 시도에 대한 단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영례(72)씨는 “만약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 종사자 이모(66)씨는 “건설업계에서도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를 체감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니 우리 일감도 없다”며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속히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정치에 관심이 가

지게 됐다는 청년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대학생 김모(21)씨는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불법 계엄을 보고 지도자를 뽑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이번 구속을 통해 수사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의 구속까지 정치적 상황이 급격히 바뀐다. 제대로 된 수사과 처벌이 이뤄질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4면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알립니다

2025 올해의 섬 ‘완도 여서도를 가다!’ 해양영토 순례 참가자 모집

2025.8.7(목)~8.8(금) 1박2일

행사장소 완도군 및 여서도·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일원
모집대상 완도군 및 여서도 해상 일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거나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60명
신청기간 2025.7.14.(월)~7.25.(금)까지
신청방법 전남일보 홈페이지(www.jnilbo.com)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결과발표 2025.7.28.(월) / 개별전화통보 및 전남일보 홈페이지 공고
문의 062)519-0730~1
주최·주관 전남대학교·전남일보
후원 전라남도, 완도군, 전남대학교무인도서연구센터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주말·휴일도 '찜통 더위'

오늘 광주·전남 최고 32~35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온열질환자가 역대 최고 속도로 증가하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지난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라 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 수가 총 12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빠른 시기에 1000명을 넘긴 수치로, 같은 기간 작년보다 환자 수는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8명이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8일 하루 동안에만 238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으며, 일일 발생 기준으로는 2018년 8월 3일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환자의 대부분은 실외(81.1%)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작업장(28.7%), 논밭(14.4%), 도로변(13.9%)에서의 활동 중 쓰러진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3.6%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역시 광주·전남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최저기온은 20~24도, 최고기온은 32~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토요일인 12일 최저기온은 19~24도, 최고기온은 31~35도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13일 일요일은 최저기온이 21~24도, 최고기온은 31~24도가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며 “물과 그늘 등 휴식을 충분히 해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승우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